

배포 일시	2022. 10. 24.(월)		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 안재혁 (044-201-3964)
	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담당자	사무관 백정호 (044-201-398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교통부는 GTX-C '23년 착공 및 '28년 개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'22.10.24. 파이낸셜 뉴스) >

◆ 은마아파트 지하 지나가는 GTX-C, 안전성 우려에 또 발목

- 현대건설은 은마아파트 우회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출, 국토부는 검토 중
- 창동역~도봉산역 지상·지하화 논란, 정차역 협상 지연 등 착공·개통 지연 우려

- 국토교통부는 KDI에서 실시 중인 민자적격성 검토가('23.2월 예정) 완료 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과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여 계획대로 '23년 착공 및 '28년 개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노선안 및 추가 정차역 등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러한 사업 일정에 맞춰 GTX 기능, 경제성, 안전성, 상대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 제시한 사업계획안에 수용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.
 -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,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상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.